

## 腦卒中患者에 대한 年例報告(IV)

沈 汶 基 · 全 燦 鎔 · 朴 鍾 榮\*

### ABSTRACT

#### Yearly Report on CVA patients (IV)

Shim. Mun-Ki, Jun. Chan-Yong, Park. Chong-Hyeong\*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Clinical observation was done on 272 cases of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CVA with brain CT, TCD, MRI scan and clinical observation. They were hospitalized in the oriental medical hospital of Kyung-Won University from 1st January to 31st December in 1997.

1. The case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kinds: cerebral infarction, cerebral hemorrhage, and transient ischemic attack. The most case of them was the cerebral infarction.
2.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strokes in male and female. And the frequency of strokes was highest in the aged over 50.
3. In cerebral infarction the most frequent lesion was the territory of middle cerebral artery, and in cerebral hemorrhage the most frequent lesion was the basal ganglia.
4. The most ordinary preceding disease was hypertension, and the next was diabetes.
5. The rate of recurrence was high in cerebral infarction.
6. The cerebral infarction occurred usually in resting and sleeping, and the cerebral hemorrhage in acting.

---

\*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心系內科學教室

7. The common symptoms were motor disability and verbal disturbance.
8. The average time to start physical therapy was 11.3rd day after stroke in cerebral infarction and it was 15.2th day after stroke in cerebral hemorrhage.
9. The common complications were urinary tract infection, pneumonia, myocardial infarction.
10. Hypercholesterolemia and hypertriglyceridemia are usually found more frequently in cerebral infarction than in hemorrhage.
11. In acute or subacute stage, the methods of smoothening the flow of ki(順氣), dispelling phlegm(祛痰), clearing away heat(清熱) or purgation(瀉下) were frequently used. and in recovering stage, the methods of replenishing ki(補氣), tonifying the blood(補血) or tranquilization(安神) were frequently used.

## I. 緒 論

최근 韓方病院에 中風(腦卒中)으로 入院 治療 받는 患者가 增加하고 있으며<sup>3,25)</sup>, 1997年 統計廳의 調査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死亡原因은 循環期疾患으로 全體死亡原因의 약 26.3%를 차지하고, 이중 比重이 높은 것은 腦血管疾患(中風)으로 全體 死亡原因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報告되어 中風이 國民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13,25)</sup>.

中風(腦卒中)은 疾病 자체가 致命的일 뿐만 아니라, 身體的, 精神的으로 長期的인 後遺症을 남긴다는 점에서 個人的, 國家的 損失이 크기 때문에 體系的인 管理 및 豫防이 必要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腦卒中에 대한 疫學 調査나 有病率, 臨床經過, 豫候에 대한 研究가 質的, 量的인 면에서 아직 不足한 實情이며 效率的인 治療와 患者管理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sup>11,26)</sup>

이에 效率的인 治療와 患者管理를 위해 本院에서는 1994, 1995年, 1996年 3個 年度에 걸쳐 暎園大學校 附屬韓方病院 心系內科에 入院했던 腦卒中患者를 對象으로 觀察하여 臨床統計分析을 施行하였고, 이에 1997年度에 本院에 腦卒中으로 入院하여 治療받은 患者 272例를 考察하여

그 間의 報告들과 1994年, 1995年, 1996年의 報告와 比較分析함으로써 本院에 入院하였던 腦卒中 患者의 特性과 變化를 分析하여 多少의 有意한 知見을 얻어 報告하는 바이다.

## II. 觀察對象 및 項目

### 1. 對象

1997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 까지 腦卒中으로 暎園大學校 附屬韓方病院 心系內科에서 入院 治療한 272名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診斷은 臨床症狀 및 電算化斷層撮影(CT), TCD(Transcranial Doppler) 및 磁氣共鳴映像(MRI)등을 參考하였다.

但, 同期間에 同科에 入院한 患者中에서 腦卒中 後遺症으로 再入院한 患者나, 腦卒中 以外의 疾患으로 入院하였던 患者는 除外하였다.

### 2. 調査項目

腦卒中의 原因, 誘因, 症狀, 治療方面에 있어서 各各의 特性을 살펴볼 수 있도록 腦卒中의 種類別 發生頻度, 腦卒中 患者의 性別 및 年齡別 發生頻度, 腦梗塞 및 腦出血의 部位別 發生頻度, 過去歷上 主要疾患, 再發率, 季節 및 月別

發生 頻度, 發病 誘因, 發病後 入院까지의 經過 時間, 入院 經路, 家族歷, 入院 當時의 意識 狀態와 豫後와의 關係, 入, 退院當時 症狀, 入院 期間, 物理治療 開始時期, 合併症, 入·退院時 血壓所見, 心電圖, TCD所見, 入院 當時 血清脂 質의 測定所見, 入院 期間中の 韓·洋方協診, 入·退院時의 處方活用을 調查하여 統計낸 뒤, 既存의 研究論文과 本院의 94年, 95年, 96年の 本院 統計報告等を 比較하였다.

### Ⅲ. 結果

#### 1. 腦卒中의 種類別 發生頻度

腦卒中은 腦出血, 腦梗塞, 一過性腦虛血發作 (TIA)으로 分類하였다. 總272例의 患者中 腦梗塞이 204例(75%), 腦出血 43例(15.8%), 一過性腦虛血發作 25例(9.2%)順이었다.

#### 2. 性別 및 年齡別 發生頻度

總 272例中 남자가 144例(52.9%), 여자가 128例(47.1%)로 나타났고, 年齡別로는 70세 以上이 85例(31.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78例(28.7%), 50대가 66例(24.3%), 40대가 32例(11.7%), 39세 以下가 11例(4%)順으로 나타났다.

#### 3. 腦梗塞 및 腦出血의 部位別 發生頻度

腦梗塞의 部位別 發生頻度は 總 204例 中에서 中大腦動脈 111例(54.5%), 後大腦動脈 26例(12.7%), 前大腦動脈 24例(11.8%), 腦橋 23例(11.3%), 小腦 9例(4.4%), 腦萎縮 6例(2.9%), 椎骨 및 基底核動脈 3例(1.5%), 延髓 2例(0.9%)順으로 나타났다.

腦出血의 部位別 發生頻度は 總 43例 中에서 基底核部 22例(51.2%), 腦橋部 6例(13.9%), 腦室 + 腦皮質下部 5例(11.6%), 皮質下部 4例(9.3%),

視床部 3例(7%), 腦室 2例(4.7%) 小腦 1例(2.3) 順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腦梗塞 및 腦出血의 部位別 發生頻度

腦 梗 塞 (%)		腦 出 血 (%)	
前大腦動脈	24(11.8)	基底核部	22(51.2)
中大腦動脈	111(54.5)	視床部	3(7)
後大腦動脈	26(12.7)	腦皮質下	4(9.3)
椎骨 및 基底核動脈	3(1.5)	腦橋	6(13.9)
腦萎縮	6(2.9)	小腦	1(2.3)
腦橋	23(11.3)	腦室	2(4.7)
小腦	9(4.4)	腦室+腦皮質下	5(11.6)
延髓	9(4.4)		
計	204(100)	計	43(100)

#### 4. 過去歷上 主要疾患

過去歷은 高血壓이 106例(39.0%)로 가장 많았고, 糖尿病이 31(11.4%), 高血壓과 糖尿가 같이 있는 경우는 30例로(11%) 나타났다. 그 외에도 心臟病 11例(4%), 肝疾患 10例(3.7%), 肺疾患 7例(2.6%) 消化器病 6例(2.2%), 別無 68例(25%)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過去歷上 主要疾患

	腦梗塞	腦出血	TIA	計(%)
高血壓	85	15	6	106(39.0)
糖尿病	26	3	2	31(11.4)
高血壓+糖尿	24	4	2	30(11)
心臟病	11	0	0	11(4)
肝疾患	6	2	2	10(3.7)
肺疾患	5	2	0	7(2.6)
消化器病	4	1	1	6(2.2)
別無	43	16	12	71(26.6)

#### 5. 再發率

總 272例의 患者中 初發患者는 186例(68.4%)

이었고, 再發은 77例(28.3%), 3回 以上の 再發을 보인 境遇는 患者가 9例(3.3%)等으로 나타났다.

### 6. 季節 및 月別發生頻度

月別 發生頻度は 1月에 21例(7.7%), 2月에 25例(9.2%), 3月에 19例(7.0%), 4月에 24例(8.7%), 5月에 22例(8.1%), 6月에 20例(7.4%), 7月에 20例(7.4%), 8月에 18例(6.6%), 9月에 20例(7.4%), 10月에 29例(10.7%), 11月에 30例(11%), 12月에 24例(8.8%)等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계절별로 3개월씩 묶어보면 가을이 79例(29.1%), 겨울 70例(25.7%), 봄 65例(23.8%), 여름 58例(21.4%)順으로 나타났다.

### 7. 發病誘因

發病當時 發病誘因은 活動時 95例(34.9%), 睡眠 및 起床時 74例(27.2%), 休息時 31例(11.4%), 感情興奮 28例(10.4%), 食事 26例(9.7%), 飲酒 9例(3.4%), 對話中 4例(1.5%), 排便中 1例(0.4%) 順으로 나타났고, 外傷 等 其他는 3例(1.1%)였다. (Table 3.)

Table 3. 發病誘因

	腦梗塞(%)	腦出血(%)	TIA(%)	計(%)
活動	68(33.4)	23(53.5)	4(16)	95(34.9)
睡眠 및 起床時	68(33.4)	3(7.0)	3(12)	74(27.2)
休息	23(11.4)	3(7.0)	5(20)	31(11.4)
感情興奮	19(9.5)	5(11.6)	4(16)	28(10.4)
食事	18(8.9)	3(7.0)	5(20)	26(9.7)
飲酒	3(1.5)	4(9.3)	2(8)	9(3.4)
對話	1(0.5)	1(2.3)	2(8)	4(1.5)
排便	1(0.5)	0	0	1(0.4)
其他	2(0.9)	1(2.3)	0	3(1.1)
總計	204(100)	43(100)	25(100)	272(100)

### 8. 發病後 入院까지의 經過時間

總 272例의 患者중 1~2日이 73例(26.9%), 11일 以上이 71例(26.1%), 24時間 以內가 58例(21.3%), 3~5日이 43例(15.8%), 6~10日이 27例(9.9%)順으로 나타났다.

### 9. 入院經路

總 272例의 患者중 本院直行이 116例(42.5%), 洋方病院을 통해 轉院된 境遇가 84例(30.9%), 韓醫院 51例(18.8%), 他 韓方病院 13例(4.8%), 醫院 4例(1.5%), 藥局等 其他 4例(1.5%)順으로 나타났다.

### 10. 高血壓 및 中風의 家族歷

272名의 患者中 高血壓의 家族歷이 있는 境遇는 38例(14%), 中風의 家族歷이 있는 境遇 43例(15.8%), 糖尿의 家族歷이 있는 境遇가 10例(3.7%)順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高血壓 및 中風의 家族歷

		腦梗塞	腦出血	TIA	計
高血壓	父系	13	2	2	16
	母系	13	5	0	18
	兄弟	4	0	0	4
計(%)		30(14.7)	7(16.3)	2(8.0)	38(14)
中風	父系	10	2	0	12
	母系	14	8	1	23
	兄弟	6	2	0	8
計(%)		30(14.7)	12(27.9)	1(4.0)	43(15.8)
糖尿	父系	0	1	2	3
	母系	5	0	0	5
	兄弟	0	2	0	2
計(%)		5(2.5)	3(7.0)	2(8.0)	10(3.7)

### 11. 入院當時 意識狀態와 豫後와의 關係

精神이 明瞭한 患者의 境遇는 好轉이 238例(90.1%), 別無進退가 16例(6.1%), 應急退院이 10例(3.8%)로 나타났고, 精神이 昏迷한 境遇 好轉이 4例(50%), 別無進退는 2例(25%), 應急退院은 2例(25%)順이었다.

### 12. 入退院當時의 症狀

總 272名의 患者中 200例(73.5%)의 患者에서 運動障礙가 있었고, 그 中 MMP(Muscle motor power) Gr. I, II의 重症 障礙가 69例(25.3%), MMP Gr. III, IV의 障礙가 131例(48.2%)였다. 그 外에는 語鈍 156例(57.4%), 眩暈 91例(33.5%)

頭痛 73例(26.8%), 口眼喎斜 45例(16.5%), 胸悶 43例(15.8%), 嚥下困難 30例(11%), 食欲不振 30例(11%) 排尿障礙 25例(9.2%) 不眠 25例(9.2%) 惡心嘔吐 21例(7.7%) 善欠 16例(5.9%) 順으로 나타났다.

腦梗塞의 症狀 頻度는 運動障礙, 語鈍, 眩暈, 頭痛, 口眼喎斜順이었으며, 腦出血의 症狀 頻度는 運動障礙, 語鈍, 頭痛, 眩暈, 口眼喎斜順이었다. 退院時의 症狀은 運動障礙가 141例(51.8%)에서 나타났으며, 輕度の 障礙는 122例(44.9%), 重症 障礙는 19例(7%)에서 있었다. 그外 語鈍이 44例(16.2%), 眩暈이 21例(7.7%), 食欲不振 16例(5.9%), 不眠10例(3.7%), 頭痛 9例(3.3%), 口眼喎斜 7例(2.6%) 嚥下困難이 2例(0.7%), 不語가 2例(0.7%)順으로 나타났다. (Table 5-1, 5-2.)

Table 5-1. 入院當時의 症狀.

	腦梗塞		腦出血		TIA		計(%)	
	54	101	15	23	0	7	69(25.3)	131(48.2)
運動障礙	54	101	15	23	0	7	69(25.3)	131(48.2)
語鈍	128		23		5		156(57.4)	
不語	16		0		0		16(5.9)	
頭痛	53		15		5		73(26.8)	
復視	6		2		0		8(2.9)	
眩暈	63		12		16		91(33.5)	
惡心嘔吐	10		8		3		21(7.7)	
口眼喎斜	36		9		0		45(16.5)	
胸悶	32		5		6		43(15.8)	
嚥下困難	26		4		0		30(11.0)	
小便失禁	21		4		0		25(9.2)	
小便不通	2		0		0		2(0.7)	
便秘	6		0		0		6(2.2)	
呼吸困難	2		0		0		2(0.7)	
善欠	15		1		0		16(5.9)	
不眠	18		4		3		25(9.2)	
心悸	4		0		2		6(2.2)	
食欲不振	24		3		3		30(11.0)	

Table 5-2. 退院 當時의 症狀

	腦梗塞		腦出血		TIA		計(%)	
	16	99	3	23	0	0	19(7)	122(44.9)
運動障礙	16	99	3	23	0	0	19(7)	122(44.9)
語鈍	38		6		0		44(16.2)	
不語	1		0		0		1(0.4)	
頭痛	7		2		0		9(3.3)	
復視	2		2		0		4(1.5)	
眩暈	15		4		2		21(7.7)	
惡心嘔吐	1		0		0		1(0.4)	
口眼喎斜	5		2		0		7(2.6)	
胸悶	4		0		0		4(1.5)	
嚥下困難	2		0		0		2(0.7)	
小便失禁	4		0		0		4(1.5)	
小便不通	1		0		0		1(0.4)	
便秘	2		1		0		3(1.1)	
呼吸困難	3		0		0		3(1.1)	
善欠	0		0		0		0	
不眠	8		0		2		10(3.7)	
心悸	2		0		0		2(0.7)	
食欲不振	10		2		4		16(5.9)	

### 13. 入院期間

患者의 入院期間은 10일 以內가 78例(28.6%), 11~20日이 64例(23.5%), 31~60日이 56例(20.4%), 21~30日이 39例(14.3%), 61日 以上이 36例(13.2%)順 이었다.

### 14. 發病後 物理治療 開始時期

總 272例의 患者中 113例(41.5%)가 物理治療를 받았으며, 腦梗塞의 境遇 總 204例中 92例(45%)가 物理治療를 받았고, 그중 52例(56.5%)가 發病日(O/S)로부터 2週日 以內, 26例(28.3%)가 1週日 以內, 13例(14.1%)가 3週日 以內, 1例(1.1%)가 4週日 以內에 物理治療를 開始하였다. 腦出血의 境遇 總 43例中 21例(48.8%)가 物理治療를 받았으며, 그 中 12例(57.2%)가 發病日(O/S)로부터 3週日 以內에, 5例(23.8%)가 2週日 以內, 2例(9.5%)가 4週日 以內, 2例(9.5%)가 1週日 以內에 物理治療를 開始하였다.

### 15. 合併症

總 272例의 患者中 17例(6.2%)의 合併症이 있었으며, 尿路感染이 7例(2.6%), 褥瘡이 6例(2.2%), 肺炎이 3例(1.1%), 心筋梗塞이 1例(0.4%)順으로 나타났다.

### 16. 入·退院時 血壓

入院時 收縮期 血壓을 보면 140mmHg미만은 116例(42.6%), 140~160mmHg이 94例(34.6%), 160~180mmHg이 48例(17.6%), 180~200mmHg이 13例(4.8%), 200~220mmHg이 1例(0.4%)였으며, 擴張期 血壓은 90mmHg미만이 91例(33.5%), 90~100mmHg이 143例(52.5%), 100~110mmHg이 25例(9.2%), 110~120mmHg이 10例(3.7%), 120~130mmHg이 3例(1.1%)이었다. 退院時 收縮期 血

壓을 보면 140mmHg미만은 189例(69.5%), 140~160mmHg는 65例(23.9%), 160~180mmHg는 13例(4.8%), 180~200mmHg는 5例(1.8%)였다. 擴張期 血壓은 90mmHg미만이 167例(61.4%), 90~100mmHg은 100例(36.8%), 100~110mmHg은 3例(1.1%), 110~120mmHg은 2例(0.7%)로 나타났다.

### 17. 心電圖 所見

總 272名의 患者中 137例(50.4%)가 正常이었으며, 左心室肥大가 45例(16.5%), 虛血性 心疾患은 43例(15.8%), 洞性頻脈은 7例(2.6%), 心筋梗塞은 7例(2.6%), 房室遮斷 7例(2.6%), 心室早期收縮이 7例(2.6%), 完全右角傳導遮斷이 6例(2.2%), 心房細動 5例(1.8%), 洞性徐脈 3例(1.1%) 기타 5例(1.8%)順으로 나타났다.

### 18. TCD 소견

TCD는 總 272名의 患者中 13例에 대해서 검사하였는데 TIA 患者와 CT, MRI로 Lacunar infarction으로 診斷받은 患者를 대상으로 하였다. 動脈硬化症과 塞栓症에 대해서 調査하였는데 塞栓症을 보이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動脈硬化症患者 總13例中 Lacunar infarction은 12例(92.3%) TIA는 1例(7.3%)를 보였다. 性別 및 年齡別 發生比率은 男子가 8例(61.5%), 女子가 5例(38.4%)로 나타났으며, 50代가 6例(46.2%), 60代가 4例(30.7%) 30,40,70代가 各各 1例(7.7%)順으로 나타났으며, 腦梗塞에서는 50, 60代가 各各 3例(37.5%)로, 30, 70代가 各各 1例(7.7%)로 나타났고, TIA에서는 1例(100%)로 나타났다.

TCD檢査를 받은 患者의 症狀은 腦梗塞의 경우 輕微한 運動 및 知覺障碍(麻木感, 少力)가 9例(75%), 語鈍 5例(41.7%), 眩暈 5例(41.7%), 頭痛 4例(33.3%), 胸悶 2例(16.7%) 口眼喎斜 1例(8.3%) 順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不眠, 食慾不振

Table 6. 動脈硬化症의 年齡別 血流速度

평균(최고/최저)		Lacunar infarction								TIA					
연령	例	MCA		ACA		PCA		ICA		CCA		VA			
		(61±14)	(50±13)	(40±9)	(44±3)	(27±3)	(39±9)	(39±9)							
31 - 40	1	99.9													
		106	91												
41 - 50	1	87.9													
		96.7	82.4												
51 - 60	6	32.2				26.5		21.5		19.1		21.1			
		43.7	28.1			-	-	23	20	15.6	25			20.6	21.5
61 - 70	4	30.1						14.2				23.4			
		39	18.7					12.5	16.2			18.7	26.5		
71 -	1			34.3											
				-	-										

도 1예씩(8.3%) 나타내었고, TIA는 頭痛과 眩暈을 동반한 경우가 1예를 나타내었다. 動脈硬化症의 年齡別 血流速度는 MCA의 조사에서 현저히 나타났는데 61~70歲가 평균 30.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51~60歲 32.2, 41~50歲 87.9, 31~40歲 99.9順으로 나타났다.(Table 6.)

19. 入院當時 血清脂質의 測定

總 272名의 患者中 Triglyceride와 Total-cholesterol의 測定은 266例에서 이루어졌다.

Triglyceride値는 正常人 境遇가 216例(81.2%), 210~300mg/dl는 39例(14.7%), 300mg/dl以上은 11例(4.1%)등으로 나타났다.

Total-cholesterol의 境遇 215例(80.8%)가 正常이었으며, 250mg/dl 以上인 境遇는 46例(17.3%)이었고, 130mg/dl以下인 境遇는 5例(1.9%)이었다.

HDL-cholesterol은 264例에서 檢査가 이루어졌으며, 中 222例(84.0%)가 正常이었으며, 39例(14.7%)에서 32mg/dl以下로 나타났고, 3例(1.3%)에서 88mg/dl 以上으로 나타났다.

20. 入院 期間中의 韓洋方協診

洋方處置는 101例가 있었으며, Foley catheter (F/C)가 26例(25.7%), Nelaton catheter (N/C)가 23例(22.8%), Suction이 18例(17.8%) Levin-tube가 13例(12.9%), O2공급이 13例(12.9%), Enema가 11例(10.9%), Cannula가 2例(2%)順으로 나타났다. 其他는 6例(5.9%)로서 Dressing, Irrigation 등이 施行되었다. 藥物治療는 總 272例중 經口藥物이 125例(46%), 注射治療가 7例(2.6%) 經口藥物과 注射治療가 같이 투여된 것이 125例(46%)로 나타났다.

經口藥物로는 腦血流 改善劑인 Edamon A이 224例(82.4%)로 가장 많이 處方됐으며, 血壓降下劑인 Naril, Adalat, Oldeca, Fludex 가 各各 147例(54%), 84例(30.9%), 45例(16.5%), 3例(1.1%)에서 處方되었고 高脂血症 改善劑인 Mevalotin이 88例(32.4%)에서 處方 되었다.

輸液療法으로는 Dextrose water(D/W)가 58例(21.3%), Cerol 34例(12.5%), Hartman solution(H/S) 34例(12.5%), Fravasol 25例(9.2%), Normal saline(N/S) 23例(8.5%), Dextrose saline(D/S) 20例(7.4%), HartmanDextrose (H/D)19例(6.9%)에서 處方되었다.

## 21. 處方活用頻度

體質方과 後世方の 活用頻度數는 總 272名의 患者中 入.退院期間동안 體質方을 응용한 경우는 114例(41.9%)로 나타났고, 後世方을 사용한 경우는 73例(26.8%)로 나타났고, 入院時 體質方을 使用하였으나 退院時 後世方을 使用한 경우는 60例(22.1%), 入院時 後世方을 使用하였으나 退院時 體質方을 使用한 경우는 25例(9.2%)로 나타났다.

體質處方은 總272名의 患者中 入院時 172例(63.2%), 退院時 131例(48.6%)에서 應用되었으며, 體質方別 頻度數는 入院時 太陰人方 7個·82例(47.7%), 少陽人方 3個·68例(39.5%), 少陰人方 3個·22例(12.8%)으로 나타났으며, 退院時 太陰人方 7個·60例(45.8%), 少陽人方 3個·56例(42.7%), 少陰人方 5個·15例(11.5%)로 나타났다. 入院 當時 處方으로는 荊防地黃湯, 熱多寒少湯, 涼膈散火湯, 星香正氣散, 清心蓮子湯順이었으며, 退院時는 荊防地黃湯, 補中益氣湯, 清心蓮子湯, 加味清心湯, 太陰調胃湯順으로 活用되었다.

## IV. 考 察

腦卒中이란 腦血管의 循環障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急激한 意識障이나 運動障, 感覺障 등을 爲主로 하는 腦神經症候群으로 腦出血이나 腦梗塞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sup>9)</sup>. 腦卒中은 高血壓 患者와 高齡層에서 많이 나타나며 成人에 있어서 3大 死亡原因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境遇 45세 以上인 人에서 腦卒中으로 因한 死亡이 全體死亡患者의 1, 2位를 차지하고 있고, 美國에서는 每年 約 20萬名이 腦卒中으로 死亡된다고 報告되고 있으며, 日本의 境遇도 50세 以上에서 25%정도가 腦卒中으로 因하여 死亡하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sup>16,19,25)</sup>.

腦卒中의 原因으로는 高血壓, 動脈硬化症, 糖

尿病, 心臟病, 腎臟病, 先天的 血管奇形이 直接的인 原因이 되며, 遺傳이나 體質의 素因, 年齡, 過飲, 吸煙, 스트레스, 感情의 興奮, 運動不足, 肥滿 등이 危險要因이 된다<sup>6,9,25)</sup>. 本院에서도 94年 姜<sup>2)</sup>과, 95年 李<sup>20)</sup>, 96年에 姜<sup>1)</sup>의 해 3次에 걸친 臨床考察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1997年 1月 1日 부터 1997年 12月 31日 까지 本院 心系內科에 腦卒中으로 入院한 患者를 中心으로 症例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本院에 入院한 腦卒中患者의 種類別發生頻度는 全體 272例의 患者中 腦梗塞이 204名(75%), 腦出血 43名(15.8%), 一過性腦虛血發作이 25名(9.2%)順이었다. 이는 96年 姜<sup>1)</sup>의 腦梗塞 61.4%, 腦出血 24.8% 보다 相對적으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Smirk<sup>31)</sup>는 1950年 以後 血壓 降下劑가 널리 使用되고 나서 腦出血의 頻도가 減少되는 反面 腦梗塞이 增加하고 있다고 報告하였으며, 宋<sup>13)</sup>은 最近 10年間 高血壓性 疾患이라 할 수 있는 腦出血이 減少하고 動脈硬化와 關聯이 있다고 생각되는 腦梗塞이 增加하고 있다고 報告한 것과 일치하였다.

年齡別發生頻度는 年齡別로는 70세 以上이 85例(31.3%)로 가장 많았고 60代 78例(28.7%), 50代 66例(24.3%), 40代 32例(11.7%)의 順으로 나타났다. 96年 姜<sup>1)</sup>의 70세 以上 98例(33.8%), 60代 95例(32.7%) 비하면 減少하였으나 전체적인 순위의 變動은 없었다. 이는 腦卒中의 發生年齡이 高齡 쪽으로 移動하고 있다는 宋<sup>13)</sup>의 研究와 類似點이 있다.

男女別 發生頻度는 總 272例中 男子가 144例(52.9%), 女子가 128例(47.1%)로 男子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96年 姜<sup>1)</sup>의 女子 161例(55.5%), 男子 129例(44.5%)와 상반되고, 國內 大部分의 報告<sup>4,5,7,8)</sup>와는 一致된 傾向을 보였다. 이는 相對적으로 社會的 活動이 많은 男性의 吸煙, 過飲, 스트레스等에 原因이 있을 수 있다고 思料되며, 性別發生率에 대해서는 뚜렷한 有意性이 없었다.



部位別 發生頻度에 대해서는 MRI, CT所見에 따라 分類하였다. 腦梗塞의 境遇는 總 204例 中에서 中大腦動脈이 111例(54.5%), 後大腦動脈 26例(12.7%), 前大腦動脈 24例(11.8%), 腦橋 23例(11.3%), 腦萎縮 6例(2.9%), 椎骨 및 基底核動脈 3例(1.5%), 延髓 2例(0.9%), 小腦 9例(4.4%) 順으로 나타났다.

腦出血의 境遇는 總 43例 中에서 基底核部 22例(51.2%), 腦橋部 6例(13.9%), 腦室+腦皮質下部 5例(11.6%) 皮質下部 4例(9.3%), 視床部 3例(7%), 腦室 2例(4.7%) 小腦 1例(2.3)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95, 96년에 比하여 視床部과 皮質下部의 出血은 減少한 반면, 腦室과 腦橋의 出血이 增加하는 傾向을 나타내었다.

過去歷上 主要疾患을 살펴보면, 總 272例 中에서 高血壓이 106例(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는 金等<sup>10,14,15,18</sup>의 報告와도 一致하였고, 이는 94年 姜<sup>2</sup>의 59.9%, 95年 李<sup>20</sup>의 48%, 96年 姜<sup>1</sup>의 58.6%보다는 낮았다. 다음으로는 糖尿病이 31例(11.4%)로 나타났고, 高血壓과 糖尿가 같이 있는 경우도 30例로(11%) 나타났다. 그 外에 心臟病 11例(4%), 肝疾患 10例(3.7%), 肺疾患은 7例(2.6%) 消化器病이 6例(2.2%)로 나타났고, 別無인 경우도 68例(25%)로 높게 나타났다.

再發率에 있어서 總 272例의 患者중 初發患者는 186例(68.4%)였고, 再發은 77例(28.3%), 3回以上 9例(3.3%)였다. 96年 姜<sup>1</sup>의 初發患者 67.2%, 再發 27.6% 三次以上 5.2%와 類似한 結果를 나타내었다.

腦梗塞의 경우 再發과 3次 以上の 患者가 各 各 64例(31.4%), 9例(4.4%)를 나타내 腦出血의 再發 11例(25.6%), 3次以上 0例(0%)에 比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腦梗塞이 再發危險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月別 發生頻度는 1월에 21例(7.7%), 2월 25例(9.2%), 3월 19例(7%), 4월 24例(8.7%), 5월 22例(8.1%), 6월 20例(7.4%), 7월 20例(7.4%), 8월

18例(6.6%), 9월 20例(7.4%), 10월 29例(10.7%), 11월 30例(11%), 12월 24例(8.8%) 등으로 나타났으며, 季節別 發生頻度는 가을 29.1%, 겨울 25.7%, 봄 23.8%, 여름 21.4% 順으로 가을이 가장 높고 여름이 가장 낮았다. 이는 가을 겨울에 많이 發生했다는 羅<sup>8</sup>의 報告等<sup>12,22,23</sup>과 일치하였으나, 94年 姜<sup>2</sup>의 여름(37.3%), 95年 李<sup>20</sup>의 봄, 여름(27.4%), 96年 姜<sup>1</sup>의 여름(26.6%) 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燠房과 衣服의 厚薄에 따른 溫度의 急變化에 대한 耐受性의 減少에 起因하는 것으로 思料되며 發生頻도와 季節과는 커다란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發病誘因을 보면 活動時 95例(34.9%), 睡眠 및 起床時 74例(27.2%), 休息時 31例(11.4%), 感情興奮 28例(10.4%), 食事 26例(9.7%), 飲酒 9例(3.4%), 對話中 4例(1.5%), 外傷 3例(1.1%) 排便中 1例(0.4%) 順으로 나타났다.

疾患別로는 腦梗塞에서 活動時와 睡眠 및 起床時가 各各 68例(33.4%), 休息時가 23例(11.4%)로 많았으며, 腦出血에서는 活動中 23例(53.5%), 感情興奮 5例(11.6%)로 나타났다. 以上の 結果에서, 腦梗塞에서는 主로 睡眠이나 休息時 發生하는 境遇(58.9%)가 가장 많았으나, 活動時도 68例(33.4%)로서 94年 姜<sup>2</sup>의 21例(17.8%), 95年 李<sup>20</sup>의 25例(14.6%) 96年 姜<sup>1</sup>의 39例(21.9%) 등 점점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며, 活動時는 男子의 경우 사무일이나 作業도중, 女子의 경우는 家事勞動中에 많이 發生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連續된 作業으로 인해 累積된 過勞로 發生하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腦出血에서는 活動과 關聯이 있는 部分에서 가장 많이 發生하였으며, 이는 姜<sup>2</sup> 裴<sup>10</sup> 등의 報告와 一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發病後 入院까지의 經過時間은 總 272例의 患者중 1~2日이 73例(26.9%), 11일 以上이 71例(26.1%), 24時間 以內가 58例(21.3%), 3~5日이 43例(15.8%), 6~10日이 27例(9.9%) 順으로 나타났다.

1~2일이 73例(26.9%)로 96년 姜<sup>1)</sup>의 33例(11.4%)보다 크게 높아져 腦卒中 急性期에 韓方治療를 選擇하는 境遇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入院經路는 總 272例의 患者중 本院直行이 116例(42.5%), 洋方病院을 통해 轉院된 경우 84例(30.9%), 韓醫院 51例(18.8%), 他 韓方病院 13例(4.8%), 醫院 4例(1.5%)等 其他 藥局 4例(1.5%)等으로 나타났다. 本院直行은 116例(42.5%)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發病後 入院까지의 經過時間에서 腦卒中 急性期 1~2일에 來院 患者의 增加와 같은 맥락으로 發病後 初診時 本院을 選擇한 患者의 增加로 解釋된다.

家族歷에 있어서는 272名의 患者中 中風의 家族歷이 있는 境遇 43例(15.8%), 高血壓의 家族歷이 있는 境遇는 38例(14%), 糖尿의 家族歷이 있는 境遇가 10例(3.7%)順으로 나타나 高血壓이나 中風의 家族歷이 있는 경우는 總 81例(29.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中風이 遺傳的인 素因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특히 糖尿의 家族歷이 있는 경우 腦梗塞이 腦出血에 비해 더 많이 發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入院時 意識狀態와 豫後와의 關係에서는 精神이 明瞭한 患者의 境遇는 好轉이 238例(90.1%), 別無進退가 16例(6.1%), 應急退院이 10例(3.8%)로 나타났고, 精神이 昏迷한 境遇는 好轉이 4例(50%), 別無進退는 2例(25%), 應急退院은 2例(25%)로 나타났고, 昏睡狀態인 境遇는 入院患者가 없었다.

應急退院은 MRI또는 CT檢査上 多量出血 등의 狀態로 수술등의 洋方治療가 絶對적으로 要求되는 狀況이거나, 肺炎이나 心筋梗塞 등의 病室內 合併症으로 洋方の ICU, CCU로 轉院된 境遇, 또는 死亡直前 靈安室이 있는 病院으로 옮긴 境遇이며, 別無進退란 治療效果가 없는 境遇, 緣故地 關係等으로 他 醫療機關으로 轉院된 境遇, 他 醫療機關에서 이미 數個月間 治療를 받고 差度가 없는 狀態로 本院에 轉院된 患者의

境遇, 또는 甚한 痴呆로 隔離治療를 要해 轉院된 境遇等を 모두 包含한다. 以上の 結果는 精神이 明瞭할수록 治療效果가 높으며, 豫後가 좋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思料되며 94年 姜<sup>2)</sup>과 95年 李<sup>20)</sup> 96年의 姜<sup>1)</sup>의 報告와 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入院 當時의 症狀으로는 總 272名의 患者中 200例(73.5%)의 患者에서 運動障礙가 있었고, 그中 MMP Gr I,II의 重症 障礙가 69例(25.3%), MMP Gr.III,IV로서 歩行이 可能한 정도인 輕症障礙가 131例(48.2%)였다. 그 外에는 語鈍 156例(57.4%), 眩暈 91例(33.5%) 頭痛 73例(26.8%), 口眼喎斜 45例(16.5%), 胸悶 43例(15.8%), 嚥下困難 30例(11%), 食欲不振 30例(11%), 排尿障礙 25例(9.2%), 不眠 25例(9.2%), 惡心嘔吐 21例(7.7%), 善欠 16例(5.9%)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腦梗塞에서는 運動障礙, 語鈍, 眩暈, 頭痛, 口眼喎斜, 胸悶, 嚥下困難, 食欲不振, 不眠, 善欠, 小便失禁, 惡心嘔吐 順이었으며, 腦出血에서는 運動障礙, 語鈍, 頭痛, 眩暈, 口眼喎斜, 惡心嘔吐, 胸悶, 嚥下困難, 小便失禁 順으로 나타나 腦卒中에서의 가장 많이 나타나는 症候가 運動障礙와 語鈍이라는 것은 거의 다른 報告<sup>21,23,24)</sup>과도 一致하고 있으며 94年 姜<sup>2)</sup>, 95年 李<sup>20)</sup> 96年 姜<sup>1)</sup>의 報告와도 一致한다.

退院時의 症狀은 運動障礙가 141例(51.8%)에서 나타났으며, 歩行이 可能한 輕度의 障礙는 122例(44.9%), 歩行이 不可能한 重症 障礙는 19例(7%)에서 있었다. 그外 語鈍이 44例(16.2%), 眩暈 21例(7.7%), 食欲不振 16例(5.9%), 不眠 10例(3.7%), 頭痛 9例(3.3%), 口眼喎斜 7例(2.6%) 嚥下困難 2例(0.7%), 不語가 2例(0.7%)로 나타나 運動障礙와 語鈍이 가장 흔히 남는 後遺障礙임을 알 수 있었다.

入院期間에 대해서 보면 總 272名의 患者中 10일 以內가 78例(28.6%), 11~20일이 64例(23.5%), 31~60일이 56例(20.4%), 21~30일이

39例(14.3%), 61日 以上이 36例(13.2%)等이었다. 平均入院期間은 23.7日이었다.

物理治療 開始時期는 腦梗塞에서 患者의 意識 狀態와 症勢, vital sign等이 安靜되는 時點을 基準으로 삼았고, 腦出血에서는 出血量과 腦浮腫을 參考하여 決定하였다.

總 272例의 患者中 113例(41.5%)가 物理治療를 받았으며, 腦梗塞의 境遇 總 204例中 92例(45%)가 物理治療를 받았고, 그 中 52例(56.5%)가 發病日(O/S)로부터 2週日 以內, 26例(28.3%)가 1週日 以內, 13例(14.1%)가 3週日 以內, 1例(1.1%)가 4週日 以內에 物理治療를 開始하였다. 腦出血의 境遇 總 43例中 21例(48.8%)가 物理治療를 받았으며, 그 中 12例(57.2%)가 發病日(O/S)로부터 3週日 以內에, 5例(23.8%)가 2週日 以內, 2例(9.5%)가 4週日 以內, 2例(9.5%)가 1週日 以內에 物理治療를 開始하였으며, 腦梗塞과 腦出血의 物理治療 開始日은 各各 平均 11.3日, 15.2日이었다.

合併症으로는 總 272例의 患者中 17例(6.2%)의 合併症이 있었으며, 尿路感染이 7例(2.6%), 褥瘡이 6例(2.2%), 肺炎이 3例(1.1%), 心筋梗塞이 1例(0.4%)로 96년에 比하여 減少하였다.

入院時 收縮期 血壓을 살펴보면 總 272名의 患者中 140mmHg미만은 116例(42.6%), 140~160mmHg이 94例(34.6%), 160~180mmHg이 48例(17.6%), 180~200mmHg이 13例(4.8%), 200~220mmHg이 1例(0.4%)였으며, 擴張期 血壓은 90mmHg미만이 91例(33.5%), 90~100mmHg이 143例(52.5%), 100~110mmHg이 25例(9.2%), 110~120mmHg이 10例(3.7%), 120~130mmHg이 3例(1.1%)等이었다. 收縮期血壓이 160mmHg以上인 경우는 總 22.8%였으며, 擴張期血壓이 100mmHg以上인 경우는 總 14%였다.

이는 96年 姜<sup>1)</sup>의 收縮期血壓 160mmHg以上 總 34.9%, 擴張期 100mmHg以上 總 34.1%에 比해 낮은 比率을 나타내었다. 이는 入院患者가 他醫療機關을 거쳐 來院하는 境遇가 많아 回復

期에 접어들거나, 平素 抗高血壓劑를 服用하고 있는 境遇가 적지 않다는데 起因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退院時 收縮期 血壓을 보면 140mmHg미만은 189例(69.5%), 140~160mmHg는 65例(23.9%), 160~180mmHg는 13例(4.8%), 180~200mmHg는 5例(1.8%)였다. 擴張期 血壓은 90mmHg미만이 167例(61.4%), 90~100mmHg은 100例(36.8%), 100~110mmHg은 3例(1.1%), 110~120mmHg은 2例(0.7%)로 나타났다. 이는 140mmHg미만이 189例(69.5%)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血壓이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160~180mmHg는 13例(4.8%), 180~200mmHg는 5例(1.8%)로 나타난 것은 應急退院한 경우였다. 하지만 退院時의 血壓은 藥物에 대한 感受性과 食餌, 運動에 따라 變化가 있으므로, 向後 持續的인 觀察이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心電圖 所見에서는 總 272名의 患者中 137例(50.4%)가 正常이었으며, 左心室肥大가 45例(16.5%), 虛血性 心疾患은 43例(15.8%), 洞性頻脈은 7例(2.6%), 心筋梗塞은 7例(2.6%), 房室遮斷 7例(2.6%), 心室早期收縮 7例(2.6%), 完全右角傳導遮斷 6例(2.2%), 心房細動 5例(1.8%), 洞性徐脈 3例(1.1%)順으로 나타났다.

左心室肥大와 虛血性 心疾患이 높게 나타난 것은 患者의 先行疾患 中에서 高血壓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것과 關聯있다고 思料된다.

TCD는 總 272名의 患者中 13例에 대해서 검사하였는데 TIA 患者와 CT, MRI로 Lacunar infarction으로 診斷받은 患者를 대상으로 하였다. 動脈硬化症과 塞栓症에 대해서 調査하였는데 塞栓症을 보이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動脈硬化症患者 總13例中 Lacunar infarction은 12例(92.3%), TIA는 1例(7.3%)를 나타내었다. 性別 및 年齡別 發生比率은 男子가 8例(61.5%), 女子가 5例(38.4%)로 나타났으며, 50代가 6例(46.2%), 60代가 4例(30.7%) 30,40,70代가 各各 1例(7.7%)順으로 나타났으며, Lacunar infarc-

tion에서는 50, 60대가 각각 3예(37.5%)로, 30, 70대가 각각 1예(7.7%)로 나타났고, TIA에서는 50대가 1예(100%)로 나타났다.

TCD檢查를 받은 患者의 症狀는 Lacunar infarction의 경우 輕微한 運動 및 知覺障礙(麻木感, 少力)가 9예(75%), 語鈍 5예(41.7%), 眩暈 5예(41.7%), 頭痛 4예(33.3%), 胸悶 2예(16.7%) 口眼喎斜 1예(8.3%) 順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不眠, 食慾不振도 1예씩(8.3%) 나타내었고, TIA는 頭痛과 眩暈을 동반한 경우가 1예(100%)를 나타내었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輕微한 運動 및 知覺障礙와 語鈍, 頭痛과 眩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Lacunar infarction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思料된다. 動脈硬化症의 年齡別 血流速度는 61~70歲가 평균 30.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51~60歲 32.2, 41~50歲 37.9, 31~40歲 49.9順으로 나타났다. 平均血流速度는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특히 MCA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平均血流速度는 減少한다는 弘<sup>27)</sup>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左.右의 血流速度와 男.女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CD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으로 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쇄에 민감도가 90%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편이나 본원에서는 주로 Lacunar infarction이나 TIA환자에 限에서 실시하여 환자 Case가 적어 Data를 산출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TCD는 내년부터는 독립된 항목으로 분리시켜 입원시, 입원기간중, 퇴원시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Lacunar infarction以外的 腦梗塞이나 腦出血환자에게도 적용하여 比較研究하는 것이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Triglyceride와 Total-cholesterol의 測定은 總 272名의 患者中에서 266例에서 이루어졌다.

Triglyceride値는 正常人 境遇가 216例(81.2%), 210~300mg/dl는 39例(14.7%), 300mg/dl以上은

11例(4.1%)順으로 나타났다. (80.8%)가 正常이었으며, 250mg/dl以上이 46例(17.3%)이었고, 130mg/dl以下인 境遇는 5例(1.9%)이었다. Total-cholesterol의 境遇는 215例(80.8%)가 正常이었으며, 250mg/dl以上이 46例(17.3%)이었고, 130mg/dl以下인 境遇는 5例(1.9%)이었다. HDL-cholesterol은 264例에서 檢查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222例(84.0%)가 正常이었으며, 39例(14.7%)에서 32mg/dl以下로 나타났고, 3例(1.3%)에서 88mg/dl 以上으로 나타났다.

Kannel<sup>30)</sup>은 Cholesterol値가 높을수록 腦卒中의 頻度가 높아진다고 報告한바 있으며, Feldman<sup>29)</sup>과 Berry<sup>28)</sup> 등은 Cholesterol値 보다는 Triglyceride가 增加한다고 報告하였다. 또한 본 調査에서도 腦梗塞 患者가 腦出血 患者보다 血清脂質에 異常이 있는 境遇가 더 많게 나타나 血清脂質이 腦出血보다 梗塞을 誘發한다는 宋<sup>13,16)</sup> 등의 報告와 一致하고 있다.

洋方處置는 101例가 있었으며, Foley catheter (F/C) 26例(25.7%), Nelaton catheter(N/C) 23例(22.8%) Suction 18例(17.8%), Levin-tube 13例(12.9%), O<sub>2</sub>공급 13例(12.9%), Cannula 2例(2%) 順으로 나타났다. 藥物治療는 總 272例중 經口藥物이 125例(46%), 注射. 輸液治療가 7例(2.6%) 經口藥物과 注射. 輸液治療가 같이 투여된 것이 125例(46%)로 나타났다.

經口藥物로는 腦血流 改善劑인 Edamon A가 224例(82.4%)로 가장 많이 處方됐으며, 血壓降下劑인 Naril, Adalat, Oldeca가 각각 147例(54%), 84例(30.9%), 45例(16.5%)에서 處方되었고 高脂血症 改善劑인 Mevalotin이 88例(32.4%)에서 處方 되었다. 腦出血과 TIA患者에게서 Adalat의 處方이 增加하였는데 이는 中風 發生初期 1~2일 이내 入院患者가 많았으며, 두개강 내압 上昇으로 인한 血壓上昇에 血壓降下 효과가 빠른 Adalat가 多用된 것으로 思料된다.

糖尿調節을 위한 血糖降下劑로는 Daonil, NPH가 處方되었는데, 96년에 比해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감소되었다. 이는 糖尿病을 과거병력으로 갖고 있는 환자 61例中 평균 3~7年前부터 血糖降下劑나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가 34例(55.7%), 10例(16.4%)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思料된다

中風의 急性期에는 腦血流 改善劑인 Edamon A 224例(82.4%) 와 함께 發熱과 感染, 腦浮腫을 막기위해 보조적으로 Zantac 30例(11%), Penbrex 22例(8.1%), AAP 15例(5.5%)와 Cerol 34例(12.5%), Bumpyrin 5例(1.8%)에서 處方되었으며, 恢復期에는 Edamon A 와 함께 局所的인 障碍나 痛症의 완화를 위해 對症的으로 處方이 되었는데, 頭痛에는 Pontal 19例(6.9%), 肩臂痛과 腰痛에는 근이완제와 진통제인 Plecton, Cloxin, Nixin, Talnif를 咳嗽에는 Bisolvon, E-piradol, cough syrup.을 처방하였으며, 結核과 肺炎의 경우에는 Rifampin, G/M, K/M, INH을 狹心症과 心不全에는 Digoxin, Nitroglycerin이 처방되었다. 輸液療法으로는 Dextrose water(D/W)가 58例(21.3%), Cerol 34例(12.5%), Hartman solution(H/S) 34例(12.5%), Fravasol 25例(9.2%), Normal saline(N/S) 23例(8.5%), Dextrose saline(D/S) 20例(7.4%), Hartman Dextrose 19例(6.9%)에서 處方되었다. 結局 大部分의 患者에서 韓洋方 並行治療가 이루어졌고, 특히 高血壓, 糖尿에 있어서 가장 많은 協診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處方活用頻度에서는 體質方과 後世方の 活用頻度數는 總 272名의 患者中 入.退院期間동안 體質方을 處方한 경우는 114例(41.9%)로 나타났고, 後世方을 處方한 경우는 73例(26.8%)로 나타났고, 入院時 體質方을 處方하였으나 退院時 後世方을 處方한 경우는 60例(22.1%), 入院時 後世方을 處方하였으나 退院時 體質方을 處方한 경우는 25例(9.2%)로 나타났다. 이는 中風急性期에는 주로 體質方을, 恢復期나 後遺症期에는 後世方을 多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入院 當時 處方으로는 荊防地黃湯, 熱多寒少

湯, 涼膈散火湯, 星香正氣散, 清心蓮子湯順이었으며, 退院時는 荊防地黃湯, 補中益氣湯, 清心蓮子湯, 加味清心湯, 太陰調胃湯順으로 活用되었다. 本 研究와 94年 姜<sup>2)</sup>과 95年 李<sup>20)</sup>, 96年의 姜<sup>1)</sup>의 報告와 比較하면 頻度는 다르지만 退院時는 類似性이 있었으나, 入院時에는 荊防地黃湯이 41例(15.1%)로서 94年 姜<sup>2)</sup>의 15例(10.3%), 95年 李<sup>20)</sup>의 5例(2.2%), 96年 姜<sup>1)</sup>의 8例(2.8%)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中風急性期를 洋方病院에서 治療받은 후 恢復期나 後遺症期에 本院으로 入院한 患者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體質處方은 總 272名의 患者中 入院時 172例(63.2%), 退院時 131例(48.6%)에서 應用되었으며, 이는 96年 姜<sup>1)</sup>의 入院時 172例(59.3%), 退院時 134例(46.2%)와 類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95年 李<sup>20)</sup>의 入院時 148例(62%), 退院時 39例(24.53%)보다는 增加한 결과를 나타내어 體質方の 應用頻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體質別處方頻度數는 入院時 太陰人方 7個·82例(47.7%), 少陽人方 3個·68例(39.5%), 少陰人方 3個·22例(12.8%)順으로 나타났으며, 退院時 太陰人方 7個·60例(45.8%), 少陽人方 3個·56例(42.7%), 少陰人方 5個·15例(11.5%)로 나타나 太陰人方이 많이 應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後世方은 總 272名의 患者中 入院時 102例(37.5%), 退院時 141例(51.8%)에서 應用되었으며, 이는 95年 李<sup>20)</sup>의 入院時 78例(34.5%) 退院時 187例(82.7%), 96年 姜<sup>1)</sup>의 入院時 118例(40.7%) 退院時 156例(53.8%)에 비해 다소 減少하였다. 後世方은 入院時 導痰湯 11例(10.8%), 丹梔逍遙散 9例(8.8%), 半夏白朮天麻湯 7例(6.9%), 清心溫膽湯 5例(4.9%) 순으로 나타났으며, 退院時 補中益氣湯 23例(16.3%), 歸脾湯 10例(7.1%), 十全大補湯 8例(5.7%), 六味地黃湯 7例(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위의 여러 要因들을 考慮하면 中風 急性期에는 實證이 많으며 順氣, 祛痰, 清熱, 瀉下등의 治法을 많이

應用하고, 中風 恢復期 및 後遺症期에는 虛證이 많아 補氣, 補血, 補陰, 安神등의 治法을 많이 應用하는 것으로 理解 될 수 있다.

## V. 結論

1997年 1月 1일부터 12月 31일 까지 1年동안 暎園大學校 附屬韓方病院 心系內科에 腦卒中으로 入院한 272例의 患者를 對象으로 觀察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腦卒中의 發生頻度は 腦梗塞 204例(75%), 腦出血 43例(15.8%), 一過性腦虛血發作 25例(9.2%)의 順이었다.

2. 男女別 發生頻度は 各各 144例(52.9%), 128例(47.1%)로 男子가 많았으며, 年齡別로는 50대 以上の 高齡層이 229例(84.3%)로 많았다.

3. 腦梗塞은 總204例中 中大腦動脈에서 111例(54.5%)로 가장 많이 發生했고, 腦出血은 總 43例中 基底核部位에서 22例(51.2%)로 가장 많이 發生했다.

4. 過去歷上 主要疾患은 高血壓이 106例(39%)로 가장 많았으며, 糖尿 31例(11.4%), 心臟病 11例(4%), 肝疾患10例(3.7%), 肺疾患 7例(2.6%), 消化器病 6例(2.2%)의 順으로 나타났다.

5. 再發率은 再發이 77例(28.3%), 3回 以上이 9例(3.3%)로 나타났으며, 腦梗塞에서는 再發以上이 73例(35.8%)로 腦出血의 11例(25.6%), 一過性腦虛血發作 2例(8%)보다 높게 나타났다.

6. 가을 79例(29.1%), 겨울 70例(25.7%), 봄 65例(23.8%)의 順으로 發生率이 높았고, 여름에 58例(21.4%)로 가장 發生率이 낮았으며, 他 報告와 比較할 때 季節과 發生率은 큰 關係가 없는 것으로 思料된다.

7. 腦梗塞에서는 睡眠 및 起床時, 活動中에 各各 68例(33.4%), 休息時 23例(11.4%)順으로, 腦出血에서는 活動 23例(53.5%), 感情興奮 5例

(11.6%)順으로, 一過性腦虛血發作은 食事와 休息時에 各各 5例(20%), 感情興奮 4例(16%)順으로 많이 發生하였다.

8. 入院 經過時間은 1~ 2日 以內가 73例(26.9%)로 가장 많았으며, 發病時 本院을 選擇한 境遇가 增加하였다.

9. 入院經路는 本院直行이 116例(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洋方病院을 거쳐서 온 境遇가 84例(30.9%)로 많았다.

10. 中風의 家族歷이 있는 境遇가 43例(15.8%), 高血壓의 家族歷이 있는 境遇가 38例(14%)이었다.

11. 入院當時 意識이 明瞭하지 않은 患者가(8例, 2.9%) 豫後도 不良(4例, 1.5%)하였다.

12. 入院當時 症狀으로는 運動障礙와 語鈍이 各各 200例(73.5%), 156例(57.4%)로 가장 많았고 退院時 後遺症으로도 運動障礙와 語鈍이 各各 141例(51.8%), 44例(16.2%)로 가장 많았다.

13. 入院期間은 腦出血보다 腦梗塞이 길었으며, 平均 入院期間은 23.7日이었다.

14. 發病後 物理治療 平均 開始時期는 發病日(O/S)을 基準으로 腦梗塞에서 11.3日, 腦出血에서 15.2日이었다.

15. 合併症은 17例(7.9%)에서 나타났고, 尿路感染 7例(2.6%), 褥瘡 6例(2.2%), 肺炎 3例(1.1%), 心筋梗塞1例(0.4%) 등의 順이었다.

16. 入院時는 比較적 血壓이 높은 境遇가 많았으며(收縮期: 156例 57.4%, 擴張期: 181例 66.5%), 退院時는 安靜된 境遇가(收縮期: 254例 93.3%, 擴張期: 267例 98.2%) 많았다.

17. 心電圖 所見上 가장 흔한 異常은 左心室肥大 45例(16.5%)였고, 다음은 心筋虛血 43例(15.8%)順이었다.

18. TCD 所見上 動脈硬化症(13例 100%)이 많았으며 輕微한 運動 및 知覺障礙가 9例(75%), 語鈍.眩暈이 各各 5例(41.7%), 頭痛 4例(33.3%) 順으로 나타났다으며, 男女別 및 左.右의 血流速度 差異는 없었으며, 年齡이 增加할수록 平均血

流速度가 減少하였는데 특히 中大腦動脈(MCA)에서의 변화가 뚜렷하였다.(40代 87.9, 50代 32.2, 60代 30.1)

19. 腦出血보다 腦梗塞에서 血清 Triglyceride(210mg/dℓ 以上 36例 17.6%)와 Total-cholesterol(250mg/dℓ 以上 37例 18.1%)이 높은 境遇가 많았다.

20. 韓·洋方 協診을 實施한 境遇가 257例(94.5%)로 많았으며, 處置로서는 F/C, N/C, Suction, L-tube 등이 各各 26例(25.7%), 23例(22.8%), 18例(17.8%), 13例(12.9%)로 많이 施行되었고, 藥物治療로는 高血壓과 糖尿에서 그 必要性이 많이 나타났다.

21. 體質處方이 172例(63.2%)로 많이 活用되었으며, 그 중 太陰人方이 많이 應用되었다.(入院時 7個 82例(47.7%), 退院時 7個 60例(45.8%))

22. 處方活用に 있어서 急性期에는 順氣, 祛痰, 清熱, 瀉下劑가 多用되었고, 恢復期 및 後遺症期에 있어서는 補氣, 補血, 補陰, 安神劑가 多用되었다.

以上の 結果를 볼때 94年, 95年, 96年の 統計와 比較해볼 때 대체로 큰 變化는 없었으나, 本院으로 直行한 患者의 增加와 合併症의 減少, TCD를 이용한 動脈硬化症의 診斷등이 눈에 띄는 變化이며 또한 體質處方の 頻繁히 應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性別 發生頻度, 季節別 發生頻度, 血清脂質 異常과 腦出血과의 關係, 合併症, 등 他 報告나 94年, 95年, 96年の 報告와 差異가 있는 部分에 대한 持續的인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 參考文獻

1. 姜官昊 外 : 腦卒中患者 290例에 對한 臨床的 考察,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18:2, 223-244, 1997
2. 姜名石 外 : 腦卒中患者 161例에 對한 臨床

- 的 考察,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16:2, 17-35, 1995.
3. 권희규 外 : 腦卒中의 臨床的 考察 서울, 대한재활의학회지 8:83, 28-40, 1984.
4. 김대하 : 腦卒中에 對한 臨床的 考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지 14:607, 1971.
5. 김동준 外 : 腦卒中 患者 740例에 對한 臨床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지 11:647, 1968.
6. 김신태 外 : 腦卒中 患者에 對한 臨床的 考察, 서울, 대한신경외과학회지, 11(2):163-170, 1982.
7. 김영준 外 : 腦卒中의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가정의학회지, 12,2:51, 1991.
8. 羅炳萬 : 腦卒中에 對한 臨床的 考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지, 20:153, 120, 1977.
9. 大韓神經外科學會 : 神經外科學pp.303-335. 서울, 중앙문화사, 1992.
10. 裴哲煥 外 : 閉鎖性 腦卒中에 對한 臨床的 研究,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8:2, 1987.
11. 徐永濠 外 : 腦卒中의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지, 18:553, 1975.
12. 徐雲教 外 : 老人 腦卒中에 對한 臨床的 考察, 서울, 大韓韓方內科學會誌 14:2, 1993.
13. 송일환 : 우리나라 뇌졸중의 최근 10년간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 대한내과학잡지 43(5), 1992.
14. 신건민 外 : 腦卒中의 危險因子에 關한 調査, 서울, 대한신경외과학회지 6.2:218, 1988.
15. 申眞榮 : 中風에 關한 臨床的 觀察, 서울, 慶熙韓醫大論文集, 4:209, 1981.
16. 양인명 外 : 뇌전산화 단층촬영에 의한 뇌졸중의 분류. 서울, 순환기12(2):359, 1982.
17. 양인명 外 : 腦卒中의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지 25(2), 1981.
18. 이기정 外 : 腦卒中의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지, 21:700, 1978.
19. 이상복 : 뇌졸중의 내과적 치료, 서울, 대한내과 학회지, 20:363, 1977.

20. 李星勳 外 : 腦卒中患者 226例에 對한 臨床的 考察,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18:1, 1997.
21. 李源哲 外 : CT上 確診된 BASAL GANGLIA INFARCTION의 臨床的 考察, 서울, 大韓韓方內科學會誌 3:1, 1986.
22. 李仁仙 外 : 中風의 臨床적 研究, 서울, 慶熙韓醫大論文集, 8:273, 1985.
23. 李診燮 外 : 腦卒中患者의 臨床的 觀察, 대전, 暎化의학 8(10):12-28, 1990.
24. 정윤희 外 : 腦卒中의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21(11), 1978.
25. 統計廳 : 死亡原因 統計年譜 第 16卷, 서울, pp. 27-29, 1997.
26. 해리슨내과학편찬위원회 : 내과학 pp. 2409-2436, 서울, 정담출판사, 1997.
27. 홍근식 外 : TCD를 이용한 정상군과 동맥경화군의 뇌혈관 반응성 평가, 서울, 대한신경과학회지 12:2 99-110, 1994
28. Berry, J.E., Uzawa, H. and Fujimi, S.: Serum Lipid profiles. Geriatrics, 24:126, 1969.
29. Feldman, R.G. and Albrink, M.J.: Serum Lipid and Cerebrovascular disease, Arch. Neurol., 10.91, 1964.
30. Kannel, W.B: Dawber, T.R., Cohen, M.F. and McNamura, P.M. : Vasculal diseases of the brain epidemiologic aspects. The Framingham study. A.J.P.H., 55:1355, 1965.
31. Smirk FH: The prognosis Of untreated and treated hypertention and advantage of early treatment. Am Heart J 83(6): 825, 1972.